

# 茶 박물관 '문전성시'

지난 11일로 개관 3주년을 맞은 보성군 한국차박물관에 지금까지 모두 69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차의 역사와 문화 등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배울 수 있는 각종 콘텐츠와 알찬 교육프로그램으

보성의 필수관광코스인 각광받으며 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물론 보성을 전국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또 차 문화 정립 및 보급에도 힘

화의 발전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우리 차의 이해와 다례교육은 꼭 필요하다"며 올바른 다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자리를 함께한 정중해 군수는 "한국차박물관은 개관 이래로 전국 차인 들로부터 끊임없이 기증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성에 오면 반드시 둘러보고 가야 할 명소가 됐다"며 "오늘을 만들어주신 직원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박물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은 이날 3주년을 기념해 '실화상봉수(實花相捧樹)'라는 주제로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과 함께 하는 다과연을 가졌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차 역사·문화 한눈에...다례교육 '인기' 69만명 방문 보성 필수관광코스 각광

로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이 몰렸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3년 동안 박물관 내 판매점 수입금은 4억8717만2000원, 입장료·체험료는 1억3901만4000원 등으로 집계돼 경영 수익과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써 올 한 해 동안 모두 1만768명이 박물관 다례 교육에 참여한 것은 물론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 오가는 다례교육'에는 29개 학교 1755명이 참가해 '한국 차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근희 원장은 행차시연 자리에서 "차 문



보성군 한국차박물관이 지난 11일 개관 3주년을 맞아 관람객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행사를 가졌다.



## 겉기만 해도 신선놀음

12일 오전 고흡군 금산면 오천리 산98-1번지 일원의 '거금 생태숲'이 4년 간의 공사를 끝내고 일반에 공개됐다. 고흡군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4년간에 걸쳐 군유림 122ha에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는 생태숲 사업을 벌여왔다. <고흥군 제공>

# 장흥 로하스타운 3600억원 투자유치

## 도, 3개사와 협약...2019년까지 1500가구 은퇴도시 조성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 은퇴도시 조성사업에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전남도는 12일 오후 도청 새재빌딩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이명흠 장흥군수, 랜드러브스코리아(주) 등 3개사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6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랜드러브스코리아(주)는 사업을 총괄하고 대우산업개발(주)은 시공을, (주)대명기술개발은 설계를 맡아 2019년까지 '정남진 로하스타운' 택지 개발과 주택 건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정남진 로하스타운'은 전남도 은퇴도시 선도사업으로 장흥군 안양면 기산·비동리 일원에 택지 개발 233만㎡, 1500세대 주택 건축을 비롯해

골프, 스파 등 체육시설과 의료시설 및 상가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로하스타운 은퇴도시가 조성되면 은퇴자를 비롯한 귀농·귀촌자 등 3000~4000여명이 입주하고 체육·편의시설, 의료시설, 상가 등의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전남도 은퇴도시담당관실은 개발 촉진지구 지정, 민간 컨소시엄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 장흥군의 적극적인 사업 부지 선 매입 등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 및 방식을 은퇴도시 조성 모범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흥 로하스타운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중점 개발해 성공사례로 확산시킴으로써 도내 46개 은퇴도시 후보지 투자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흥수기자 bungy@kwangju.co.kr

## 순천 신대지구에 전남 최대 영화관 구례 발전 위한 395가지 제안

### 광양만청, 9개 상영관 건립...내년 4월 준공

신도시 조성공사가 한창인 순천 신대지구에 전남 최대 규모의 영화관이 들어선다.

12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울촌·해룡산단 배후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공사가 한창인 순천 신대지구에 메가박스(주)가 연면적 7723㎡ 지상 4층에 9개 상영관을 갖춘 총 1426명이 동시에 관람이 가능한 영화관(멀티플렉스 시네마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 영화관 건물로서는 전남에서는 최대 규모다.

메가박스 측은 지난 6월 광양경제청 건축위 심의를 거쳐 지난달 건축허가가 나오며 추석 이후 착공,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광양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신공법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건설돼 신대지구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며 "순천은 물론 광양시민들도 영상문화에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郡 '2014 신규 시책 발굴 보고회'

구례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4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간부공무원만 참석했던 기존 회의 방식과 달리 실무담당자까지 참여 폭을 넓혀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군 재정여건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서에서 제안한 395건의 시책을 심도있게 검토했다.

발굴한 시책은 ▲섬진강 힐링 생태탐방로 조성 ▲산수유시목지 국가농업유산 선정 ▲지리산 호수공원 관광자원화 ▲구례를 통합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2014 코리아 국제철인3종경기 유치 등 105건에 달한다.

군은 보고회에서 제시된 시책을 지난 6월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구체화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전남도, 옥내외 디지털 갤러리 설치

## 도민 맞춤형 사업 본격화

전남도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정책 방향에 맞춰 옥내외 디지털 갤러리 설치 등 도민 맞춤형 정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 3.0'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간 사회 기반시설 공동 활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 창출, 정보 분석을 통한 과학적 행정 구현, 지방자치단체 간 의사

결정기구에의 민간 참여, 지방자치단체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보화담당관실에 IT전략기획 전담반(T/F)을 신설해 정부 3.0 공모과제,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사업, 안전행정부의 유비쿼터스 사업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도민 맞춤형 정보화 과제를 발굴, 국비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계획하는 지역정보센터 건립 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IT전략기획 전담반에서는 전남도

화예술재단과 협력해 '정부 3.0' 공모과제 중 하나인 국가정보통신망이 융합 '전남도 옥내외 디지털 갤러리 설치' 사업을 2단계 공모과제로 제출하기로 했다.

방형남 전남도 정보화담당관은 "이 사업이 선정되면 전남 화가들의 그림을 디지털화 할 수 있다"며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해 예향 전남의 이미지 제고와 예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장흥수기자 bungy@